

Market Index / 16일

코스피지수 ▲ 2062.22 +13.02	코스닥지수 ▲ 638.59 +8.22	유가(WTI, 달러) ▼ 54.85 -0.24	환율(원)	1USD 1204.21 100¥ 1116.29	살매 1204.21 팔매 1162.79 1077.91	1EUR 1336.15 1CNY 176.04	살매 1336.15 팔매 1284.01 159.28
---------------------------	-------------------------	------------------------------	-------	------------------------------	-------------------------------------	-----------------------------	------------------------------------

전통 잇는 '백년가게' 지정 제주는 관심 밖

중기부,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확산 위해 선정 확대 전국 210곳 중 도내 1곳뿐... 업체·지자체 관심 부족

전국적으로 고유의 전통을 이어가는 노포인 '백년가게' 선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백년가게 등록업체는 1곳에 불과, 정부의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정책에서 밀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국의 백년가게를 지난해 81개에서 올해 3회차에 걸쳐 해당 업체를 210곳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

굴·확산을 위해 중기부가 업력 30년 이상 된 가게 가운데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북(11.0%), 서울(10.5%), 전북(9.0%) 등의 순으로 많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71.4%)이 도소매업(28.6%)에 견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 백년가게로 선정된 곳은 서귀포시 소재 '왕원복집'이 유일하다. 1966년 문을 연 이

곳은 북어전문점으로 53년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백년가게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제주는 업체나 행정에서의 관심 부족으로 해당 업체가 매우 빈약하다.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신장개업과 폐업이 지속적으로 맞물리면서 오랜 기간 업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큰 이유다.

선정업체에는 백년가게 확인서와 인증현판이 제공된다. '100년 이상' 생존·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혁신 역량강화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제

단의 보증우대(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고정)와 정책자금 금리우대(0.4%포인트 인하)를 받는다.

중기부가 지난 5월 지난해 선정된 백년가게 81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매출·고객 증가(45%) 및 대표자가 자부심(37.8%)을 갖고 가게를 운영하는 가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가을 여행주간(9.12~29)을 맞아 백년가게 방문 후 인증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족집게 필름카메라, 여행 가방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택기자



지난해 열린 누웨마루 버스킹 페스티벌.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누웨마루 공연으로 '들썩' 21일부터 버스킹·콘서트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옛 바오전 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한 '2019 누웨마루 페스티벌'을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 등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버스킹 페스티벌'과 '누웨마루 콘서트'로 나

뉘어 열린다. 지난 14일 추석맞이 공연으로 문을 연 버스킹 페스티벌은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관객들은 거리 안 버스킹 장소 4곳에서 재즈, 팝, 알앤비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누웨마루 콘서트에서는 노라조와 미스트롯(한담희·장서영·장하은), 한라산, 주넌드, 불뿔간사춘기, 샘김, 이정, 홍어밴드가 다음달 12일과 13일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이상민기자



'연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은행, 태풍 '링링' 피해 도내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최근 제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지원은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 지원규모는 1000억원(신규 300, 만기연장 700)으로 운전자금 신규대출은 업체 당 최대 3억원 이내이며,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 금리도 적용된다. 백택기자 haru@halla.com

제주~포항 하늘길 다시 열렸다

대한항공 매일 1회 왕복 운항

제주와 포항을 잇는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포항시는 이날 포항공항에서 열린 제주~포항 노선 취항 기념식을 열었다.

제주~포항 노선은 대한항공이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제주 출발 오전 11시35분, 포항 출발 오후 1시15분 등 매일 1회 왕복 일정으로 항공기를 투입한다.

이달 말까지의 예매율은 제주출발편은 76%, 포항출발편은 82.3%이다.

제주~포항 노선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해오다 2014년 6월 포항공항의 활주로 공사로 인해 중단됐다. 이어 지난해 2월 에어포항이 다시 해당 노선에 취항했지만 경영난으로 9개월 만에 날개를 접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는 이날 제주~포항 노선의 첫 탑승객에게 왕복 항공권 1매와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상민기자

제주 방문 일본관광객 울들어 첫 감소

7월 8457명... 전년비 7.3%↓ "경색된 한일 관계 영향 탓"

한일 경제 전쟁이 본격화 한 지난 7월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울해 들어 첫 감소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관광객 입

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84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45명)에 견줘 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월(1만574명)에 비해서는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방문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올해 들어 처음 있는 일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급격히 경색된 한일 관계가 관광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 18만7000명 수준이던 제주 방문 일본인 관광객은 2013년 12만명으로 급감한 뒤, 2016년 4만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8만6000명으로 늘어나며 회복세로 보였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져 제주 방문 일본 관광객은 1월(59.3%), 2월(38.9%), 3월(15%), 4월(12%), 5월(27.5%), 6월(22.0%) 등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7월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본을 포함해 동남아 관광객의 제주 방문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제주 방문 싱가포르 관광객은 1665명으로 전년 대비 54.9%가 줄어 가장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이어 베트남(-45.7%), 말레이시아(-30.2%), 인도네시아(-24.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중국인과 대만 관광객은 전년 대비 각각 56.2%와 103.9% 성장해 대조를 보였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제주항공, 대만 타이베이·가오슝 신규 취항

제주항공은 다음달부터 제주와 대만 타이베이, 제주와 대만 가오슝을 잇는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10월 2일 제주-타이베이 노선에 주2회(수·토요일)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다음날인 10월 3일 제주-가오슝 노선에 주2회(목·일요일) 일정으로 항공기를 띄운다.

이 두 노선은 제주~후쿠오카, 제주~방콕에 이어 올해 들어 제주국제공

항에서 3번째와 4번째로 각각 신규 취항하는 국제노선이다. 이번 신규 취항 결정으로 제주항공의 제주발 국제선 취항도시에는 홍콩, 일본 후쿠오카, 태국 방콕 등 5개로 늘어난다.

한편 제주항공은 신규 취항을 기념해 10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편도항공권을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운임 기준으로 6만~2800원부터 판매한다. 이상민기자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p>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남원 하례리 2300㎡(자연녹지(과))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서귀포 강정동 2100㎡(자연녹지(과)) 	<p>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p> <p>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전)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	--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p>※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가50㎡ 5억 해안동 생관리아(목장) 맹지28,842㎡ 6억 상명리 조림식주택60㎡/대430㎡ 1.5억 수산동 저수지인근 카페음영관광도 620㎡ 3.1억 판포 바다경관 구 자연녹지 3028㎡ 6.4억 원 	<p>※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고성외고인근2차선전 대지조성 481㎡ 6.5억 원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p>※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출검은오름 북측 주택용지 1002㎡ 2.2억 신촌 2층주거지역 대 157㎡ 1.7억 우도하교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 원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오라정실 마을내 587㎡ 7.65억 원
--	---	---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동·서양난, 촉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화원 ☎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